

|어린이, 청소년|

〈페리스, 이건 사랑 이야기야〉

케이트 디카밀로 지음 | 전하림 옮김 | 보물창고 펴냄



★〈뉴욕타임스〉 베스트셀러 ★〈미국도서관협회〉 주목할 만한 어린이 도서
★〈북리스트〉 추천도서 ★〈커커스 리뷰〉 올해 최고의 책
★〈뱅크스트리트 교육 대학〉 올해 최고의 어린이책

대관람차(페리스 휠) 아래에서 태어나 ‘페리스’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10살 소녀 엠마 피니어스 월키는 부쩍 몸이 안 좋아진 할머니가 설상가상으로 유령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심란하다. 혹시 유령이 할머니를 데려가려고 온 건 아닐까? 하지만 유일하게 유령을 볼 수 있는 할머니는 유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.

세 번의 뉴베리상을 수상한 전설적인 작가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장편동화 『페리스, 이건 사랑 이야기야』는 열 살이 된 페리스가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, 만남과 이별이라는 보편적인 인생의 흐름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고 있다.

읽기 전 활동

1. 표지를 보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.
2. 제목은 무슨 의미일까요?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추측해보세요.
3. 양초를 켜본 적이 있나요? 그 양초를 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?

읽기 중 활동

1. 커피를 마셔 본 적이 있나요? 어떤 맛이었나요? 어른들은 왜 아이가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다고 할까요?
2. 86쪽에서, 먼سن 아저씨가 어항 안에 지폐를 넣어 두는 것이 “사람들에게 힌트를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”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?

4



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. 대부분은 핑키 때문이었다.

“손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집어넣기라도 한 거야? 그렇게 해서 는 제대로 된 악당으로 보이지 않습 니데.”

핑키가 페리스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.

페리스는 속으로 ‘핑키는 어쩌서 늘 내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걸까.’ 하고 생각했다.

“내가 제대로 된 악당으로 안 보이는 건 나도 알아. 그런데 난 제대로 된 악당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.”

페리스가 말했다.

“그래? 그렇다면 언니 어디가 잘못된 거네.”

핑키가 웃음을 그치고 경계하며 말했다.

“아니. 어디가 잘못된 건 너지.”

페리스가 반박했다.

“그만 해라, 이제.”

페리스의 엄마가 말했다.

“에야, 너 머리를 그렇게 하니까 꼭 살리 톰을* 같구나. 눈만 조금 가늘게 뜨면 아주 비슷하겠어.”

페리스의 아빠가 말했다.

“아빠다 그 모양이 되어 온 거니?”

페리스의 엄마가 말했다.

“살리 숙모가 해 줬어요.”

페리스가 답했다.

“그래, 그러니까, 왜?”

페리스의 엄마가 다시 물었다.

가족들은 오래된 상들리에 아래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. 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그 상들리에엔 단 한 번도 불이 밝혀진 적이 없었다.

페리스는 세리스 할머니를 쳐다보았다. 할머니가 페리스의 손 위에 삼바시 손을 얹었다. 두 사람은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. 두 사람은 늘 서로의 곁에 나란히 앉았다.

“난 치명수배자 포스터에 꼭 이름을 올리고 말 거예요. 그게 내 계획이에요.”

*살리 톰은 1934년에 활동했던 유명한 할리우드 악역 배우.

3. 175쪽에서, “아예 더 나아가 글렌 아저씨도 부르자”는 엄마의 말은 진심일까요?
이 말에 담긴 엄마의 진심을 알아보고, 반어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아요.

읽은 후 활동

1. 페리스와 빌리가 밀크 선생님에게 많은 단어와 어휘를 배웠듯이, 최근에 배운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소개해 보아요.
2. 책에 나온 ‘밀크 선생님’의 단어를 모아 목록을 만들고, 그 단어들을 활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아요.
3. 99쪽에 인용된 월트 휘트먼의 시 「나의 노래(이별을 고하며)」 전문을 읽고 그 감상을 나누어 보아요.
4. 밀크 선생님은 “어휘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”라고 말합니다. 어휘력이 왜 중요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.

31



그날 밤 페리스는 영 좋지 않은 날씨를 일으켜 세리스 할머니 방으로 갔다. 그리고 방 문가에 서서 할머니가 숨을 잘 쉬는지,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며 확인했다. 다 음으로 경키의 방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다. 경키는 등을 대고 누워 팔과 다리를 대자로 뻗은 채 약하게 코까지 골면서 곧잘 잠 들어 있었다.

페리스는 계단을 내려가 아래층의 식당으로 갔다. 그리고는 식탁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상류층의 분위기를 살펴보았다. 빈틈 녹 아내인 양초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.

“네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던 거니? 어디를 살펴 봐야 하는지 어떻게 안 거야?”

그날 밤 모두가 귀가할 때 밀크 선생님이 페리스한테 살짝 물

었다.

페리스는 지난 꿈 꿈을 생각했다. 별들이 들락거린 나무 상자 안에 밝은 빛으로 채워져 있던 꿈. 또, 집 위에 봉 떠서 팔아래 풍경을 내려보던 일에 대해서도 생각했다. 이런 이야기를 밀크 선생님한테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? 이 일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단어가 과연 있을까?

직감?

예감?

예견?

“잘 모르겠어요.”

페리스는 대신 이렇게 답했다.

“어떻게 알았든 내가 알아내서 전달하려고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니. 아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.”

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에 페리스는 문득 깨달았다. 경키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,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걸.

‘사랑.’

그것은 밀크 선생님이 가르치 준 필요가 없었던 말이다. 페리스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말이었다.

페리스는 부엌으로 갔다. 엄마가 노란 식탁에 앉아 혼자 술리 테르 게임을 하고 있었다.

“잠이 오지 않아요.”